

석사학위논문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을 대비한 청소년의  
나라사랑교육방안 연구

2017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방경영학과

통일정책전공

손영수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을 대비한 청소년의 나라사랑교육방안 연구

Studying to raise teenagers love for the country  
by using SNS(Social Network Service): Prepare to  
penetrate the North Korean internet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방경영학과

통일정책전공

손영수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선호

#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을 대비한 청소년의 나라사랑교육방안 연구

Studying to raise teenagers love for the country  
by using SNS(Social Network Service): Prepare to  
penetrate the North Korean internet

위 논문을 국방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국방경영학과

통일정책전공

손영수

손영수의 국방경영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 국 문 초 록

##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을 대비한 청소년의 나라사랑교육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국방경영학과  
통일정책전공  
손 영 수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던 한반도는 오늘날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63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그동안 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시대가 도래되었고 이제 국토수호의 개념으로 사이버 전이라는 새로운 전쟁터가 생겨났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으로 역사적 전쟁의 사실과 교훈을 알리며 국가수호를 위한 정신을 함양했으나 이제는 사이버전이라는 제4세대 전쟁의 개념을 확실하게 가르칠 때가 되었다. 특히 북한이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선전·선동의 사이버 심리전의 침투로가 되었음을 가르쳐야 할 시점이 되었다. ‘포스트 트루스 (Post-truth)’라는 단어가 있다. 이 단어는 ‘사실이나 진실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게 사회에서 더 잘 통한다’는 뜻으로 ‘脫 진실’로 번역된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이 옥스퍼드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다. ‘포스트 트루스’의 등장은 여론조성의 사실적 흐름을 방해하는 거짓되거나 유언비어 적인 선동이 만연해 있음의 확증이기도 하다.

한편, 세계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세계은행과 기네스 세계 기록 자료들을 취합한 통계에서 나왔다. 이는 남·북 대치 중인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땅, 바다, 하늘, 우주, 사이버 전장 터의 개념이 이제는 사이버 심리전이라는 세부적인 영역으로 바

꺼졌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내부에 분열 갈등을 조성하고 있다. 이제 북의 선전선동을 방어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새로운 세계인 사이버 공간에서 대부분 정보를 수집 및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공격의 표적이 되었다. ‘포스트 트루스’가 일반화된 현실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북한 정권을 찬양, 미화하는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부정책을 왜곡 비방하고 거짓으로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청소년들에게 북한이 주적이라는 인식을 교묘하게 희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우리는 무방비 상태이다. 본 논문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보고서인 인터넷 이용률과 활용도 및 정보통신연구원의 보고서인 한국미디어패널 조사서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과 활용도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정보와 뉴스검색 그리고 SNS를 이용한 소통의 활용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행정자치부의 부처별 해킹시도차단 건수’ 및 국가기관이 제출한 ‘북한의 선동·선전 현황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와 비교·분석한 결과도 유언비어로 선전·선동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만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북한의 사이버 심리적 침투를 막고 청소년들의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사이버 심리전의 실태를 알리는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통일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왜 ‘주적’인지,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리는 교육과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실태를 알리는 교재의 집필

및 대응 앱 개발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유능한 젊은 세대 강사를 육성해야 한다.

【주제어】 사이버침투, 사이버테러, 나라사랑교육, 선전·선동.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
제 2 장 SNS 시대,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실태 .....	4
제1절 SNS 정의와 특징 .....	4
제2절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과 심리전 실태 .....	7
제 3 장 사이버 심리전 사례와 대책 .....	14
제1절 국내사례 : 천안함과 사드 .....	14
제2절 외국사례 : 크림반도 .....	23
제3절 북한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책 .....	24
제 4 장 現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 및 교육방안 .....	33
제1절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교육실태와 문제점 .....	33
제2절 바람직한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교육방안 .....	38
제 5 장 결 론 .....	49
참고문헌 .....	52
ABSTRACT .....	55

## 표 목 차

〈표 2-1〉 북한의 사이버전 조직체계 .....	9
〈표 2-2〉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	12
〈표 2-3〉 북한의 SNS 차단 및 폐쇄 .....	13
〈표 3-1〉 SNS 삭제요청 현황비교 .....	16
〈표 3-2〉 친북·중북 및 사이트 차단 및 폐쇄 현황 .....	16
〈표 3-3〉 사드관련 북 선전· 선동 현황 .....	17
〈표 3-4〉 매체별 사드 관련 선전· 선동 현황 .....	18
〈표 3-5〉 사드 관련 주요 선전· 선동 사례 .....	19
〈표 3-6〉 ‘15년 북한 사이버 선전· 선동 현황 .....	21
〈표 3-7〉 ‘16년 북한 사이버 선전· 선동 현황 .....	22
〈표 3-8〉 친북 게시물 삭제 현황 .....	23
〈표 3-9〉 군 간부 및 장병 안보의식 조사 .....	25
〈표 3-10〉 국방의무에 대한 장병 인식 .....	26
〈표 3-11〉 2011년 이후 정부통합전산센터 해킹시도 차단 건수 .....	27
〈표 3-12〉 최근 5년(‘11~’16.7월) 부처별 해킹시도 차단 건수(순위별) ...	28
〈표 3-13〉 최근 3년(‘12~’16.7월) 공격국가별 해킹시도 차단 건수 .....	30
〈표 3-14〉 ‘15년 국가별 해킹시도 차단 건수 .....	31
〈표 3-15〉 2016년(1~7월) 국가별 해킹시도 차단 건수 .....	32
〈표 4-1〉 명예로운 보훈 내용 .....	34
〈표 4-2〉 나라사랑 교육, 교사용 지침서 .....	35
〈표 4-3〉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교육 .....	36

## 그림 목 차

〈그림 4-1〉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이용 용도 .....	39
〈그림 4-2〉 모바일 SNS 이용률 .....	41
〈그림 4-3〉 모바일 인터넷 활용도 .....	42
〈그림 4-4〉 어린이 청소년 SNS 이용률 .....	43
〈그림 4-5〉 스마트기기 자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 .....	44
〈그림 4-6〉 어린이 청소년 휴대폰 보유현황 .....	44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인터넷 통신 기술의 발달은 기존 전장의 개념을 바꾸었다. 땅·바다·하늘·우주라는 전쟁터에서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은 현대사회의 정보취득과 소통방법을 변화시켰고, 2000년대에 들어서 북한은 익명성이 보장되며 사용인구가 전 국민에 달하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인프라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여기고, 총과 같은 무기처럼 사용하며 사이버 선전·선동 공세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요원들은 한국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 다양한 국내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네티즌인 것처럼 가입한 뒤, 대한민국 정부를 비방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댓글 등을 통해 유언비어를 퍼트리며 흑색선전을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환경은 북한이 대남 심리전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되고 있다. 또한, 2,000만대 이상의 스마트폰 보급과 인터넷의 발달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좋은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국가 사이버 안보에 무방비 상태이고 북한의 적화통일을 위한 선전·선동은 정부의 정책을 비롯하여 주요 이슈와 민생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이 비방이나 모략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사회혼란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남공작기구는 사이버 댓글 팀을 운용, 마치 우리 국민이 쓴 것처럼, 댓글들을 위장하고 있는 현실이다.<sup>1)</sup> 문제는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선전·선동공작에, 우리 청소년 중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의심 없는 사실로 인식하고, 비판 없이 이를 사회관계망 SNS로 퍼뜨리고

---

1) 국정원. (2013). 『국회보도자료』.

확산하는 상황까지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더는 북한의 인터넷을 통한 선전선동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안보를 위협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국민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정보취득과 소통을 인터넷에 의존하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북한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의 실체를 알게 하여 북한 체제를 찬양하거나 우리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반정부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 건강한 자유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발전과 국토수호에 기여하며 나아가 국민대통합을 이루어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가는데 초석을 다지는 데 그 연구목적이 있다.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사이버전에는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심리전이 있는데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선전·선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사이버심리전으로 연구범위를 정한다. 인터넷 시대에 여러 가지 소통의 방법이 있는데 SNS를 통한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을 다루고자 한다. 사이버전에는 국가기관의 마비와 파괴를 가져오는 사이버 테러와 애국적 마음의 일치함을 막아버리고 적에 대한 저항 의지를 없애버리는 사이버심리전이 있다.

본 연구는 대다수 청소년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소통을 하는 SNS를 연구범위로 정하고 북한의 사이버 침략 중 사이버심리전에 관련하여 연구 범위를 두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연구방법은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의 현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문헌정보와 학술적인 접근을 통하여 이 둘을 종합하여 사이버심리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며 교재와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연구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장에서는 SNS의 정의와 기능의 특성을 살펴보고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심리전의 개념을 살펴본다.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과 심리전 현황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사이버심리전 사례와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내 사례로는 천안함과 사드 그리고 기타 참고적인 사례 현황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국외사례로 크림반도 사태를 살펴본 뒤, 그 대책 방안을 마련하였다.

4장에서는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과 문제점을 살펴본 뒤 SNS 시대에 맞는 교육을 인터넷 진흥원과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 인터넷 이용률과 활용도 통계 조사'와 정보통신연구원의 '2016한국미디어 패널조사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새로운 교육 방안을 제시하며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나라사랑함양에 대한 국가적 교육의 접근 방법에 대한 전환점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의를 다음과 같이 범위를 정하였다.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서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까지 제한한다. 청소년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말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해당한다. 청소년기본법에는 만 9세부터 24세(연령은 '만 나이')로 규정하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sup>2)</sup>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현황을 이용하면서 10대와 20대로 발표한 결과를 사용함에 합리성을 두고 범위를 정하였다.

---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2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며, 원칙으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시행령 제5조의4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이 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sup>2)</sup>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 제 2 장 SNS 시대,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실태

### 제 1 절 SNS 정의와 특징

#### 1) 정의와 특징

SNS 정의 위키피디아(Wikipedia, 2012)는 SNS를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교호적 관계망이나 교호적 관계를 구축해 주고 보여 주는 온라인 서비스 또는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SNS는 웹 기반의 서비스이며, E-mail이나 인스턴트 메신저를 통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확장으로 인한 SNS 사용자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 연령대에서 10대와 20대 청소년들의 증가세가 높다.

#### 2) SNS의 기능의 특성과 SNS 위력

##### 가) SNS의 기능의 특성

개별 서비스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는 네트워크(또는 네트워크 기능)로 이용자가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유지 및 관리하는 기능이다. 둘째는 이용자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이다. 공개적, 준공개적과 사적으로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포스팅에서 형성되는 대표적 예가 공개적, 준공개적 커뮤니케이션이다. SNS를 통한 ‘소통’의 대표적인 예로는 페이스북이 있다. 페이스북은 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예로 채팅과 메시지를 통해 사진과 음악 등을 공유하는 기능이 있다. 이 부분에서 SNS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미디어의 플랫폼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나) SNS가 가지는 위력.

북한은 SNS의 기능을 활용한 게릴라 사이버심리전 기술을 훈련하고 있다. 그 수법은 주요 인사나 정부 기관에 대한 악질적인 뜬소문을 유포해 곤경에 빠지게 하는 이른바 ‘플레임(FLAME)’ 기법과 웹사이트와 국내 중북세력의 사이버를 연결하는 ‘사이버 다리’와 ‘사이버 대리전’ 등 여러 기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적군의 와해 공작을 위한 사이버 적공작전에 국외공관과 국외파견 인원들이 비정규군으로 사이버심리전에 동원되고 있다고 한다.<sup>3)</sup> 한국적 현실에서 트위터 등 SNS가 가지는 위력은 다음의 특성에 기인한다.<sup>4)</sup>

### (1) 퍼뜨리기

트위터의 RT 기능은 자신의 팔로워에게 순식간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강력한 정보 전파의 수단이며, 여기에 댓글을 달아 의견을 보탬 수도 있다. 따라서 증폭자 즉, 팔로워가 많은 트위터 사용자가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들의 주장과 정견이 퍼질 가능성이 커진다.

### (2) 정보의 허브

트위터는 140자 단문의 서비스지만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모든 콘텐츠를 보여주거나 출처를 전달할 수 있다. 트위터는 블로그 글, 신문기사,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온라인 콘텐츠, 위치정보나 증강현실까지 링크하거나 네트워크에 올릴 수 있게 한다. 이는 트위터가 정보의 일정한 결합과 허브, 포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각 부문 지역의 첩보성 글이 실시간으로 뜨고 또 전파되면서 걸러지고 이것이 실제 확인된 사실이나 정보로 유통된다.

---

3) 김홍광. (2004). 『북한의 사이버정보전 대응과 전략』.

4) 이종현. (2015). 『스모킹 건』. 서울:맥스미디어. p.406.

### (3) 검색 및 분류(sorting) 그리고 편 가르기

타임라인에는 무수한 트윗 글이 뜨지만, 검색 기능은 이 글 속에서 관심사만을 따로 정리해서 볼 수 있게 한다. 이는 필요한 소식과 정보를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이념과 진영논리 대결에서 서로 구분을 쉽게 해주어 편 가르기가 쉽다. 즉, 견해를 달리하는 글에 동의하거나 전달해 주는 실패를 없애준다.

### (4) 익명성

상당수의 트위터 사용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또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 페이스북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이런 익명성의 보장은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상대의 공격과 비난에 따르는 책임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트위터가 외국 서버를 이용한 외국서비스라는 점은 국내 현실에서 익명성 보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으로 믿게 해준다. 비록 해외 서버라 해도 불법 대상을 추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지는 않다.

### (5) 모바일

트위터가 스마트폰 앱으로 탑재되어 모바일화되면서 정보의 수준과 질, 신속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상호 검증으로 트윗의 신뢰는 높아졌으며, 홍보 이벤트 등의 신속성을 신장시켰다. 모바일로 사이버심리전의 시공간 제약이 풀리면서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다.

SNS를 통한 정보의 소통은, 사람들의 감정과 의식을 의도하는 자의 의도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사이버심리전이 시작된다면 SNS를 통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여론을 선도하지 않으면, 정서적인 면에서 국민 여론이 분열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하여 적에 대한 항전의식을 와해시키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며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의식을 저하해 결국 북한의 의도대로 와해되고 점령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 점

령되면 국가방위는 무력해진다. 고대 중국을 통일한 진이 망하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패권을 다툰 때 초나라를 패망시킨 것이 한나라의 군사력이 아니라, 한밤에 구슬프게 울려 퍼진, 초나라의 노랫가락이었다. 구성된 초나라의 노래는 초나라 군사들의 마음을 향수에 젖게 하여 칼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떠나가게 하였고 초나라가 스스로 무너지게 한 것이다.<sup>5)</sup> 오늘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이버 세계에서 SNS를 활용한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 제 2 절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과 심리전 실태

### 1)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심리전 개념

사이버는 컴퓨터, 인터넷 등으로 만들어진 가상공간(假想空間)을 말한다. 가상의 공간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와해시켜 국가수호 의지와 안보 의지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이 일반전인 사이버심리전이다. 군사학에

5) <http://hanja.naver.com/word?query=%E5%9B%9B%E9%9D%A2%E6%A5%9A%E6%AD%8C>(2016.11.21.)四面楚歌(사면초가):사방(四方)에서 들리는 초(楚)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狀態)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孤立) 상태(狀態)에 빠짐을 이르는 말

출처:사기(史記)의 항우본기(項羽本紀)

초(楚)나라의 패왕(霸王) 항우(項羽)와 한(漢)나라의 유방(劉邦)이 천하(天下)를 다투던 때, 항우(項羽)에게 마지막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끼던 슬기로운 장수(將帥) 범증(范增)마저 떠나 버리고, 결국 유방(劉邦)에게 눌러 한(漢)나라와 강화하고 동쪽으로 돌아가던 도중 해하(垓下)에서 한(漢)나라의 명장(名將) 한신(韓信)에게 포위(包圍) 당(當)하고 말았다. 빠져나갈 길은 좁체로 보이지 않고, 병졸(兵卒)은 줄어들며 군량미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군과 제후(諸侯)의 군사(軍士)는 포위망(包圍網)을 점점 좁혀 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방에서 초(楚)나라 노래가 들려왔다. 가뜩이나 고달픈 초(楚)나라 병사로 하여금 고향(故鄉)을 그리게 하는 구슬픈 노래였다. 한(漢)나라가 항복(降伏·降服)한 초(楚)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고향(故鄉)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다. 항우(項羽)는 깜짝 놀라면서 「한(漢)나라가 이미 초(楚)나라를 빼앗았던 말인가? 어찌 초(楚)나라 사람이 저렇게 많은고?」 하고 탄식(歎息·嘆息)했다. 그는 진중에서 마지막 주연(酒宴)을 베풀었다. 그리고 유명(有名)한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의 시를 지어 자신의 운명을 탄식(歎息·嘆息)했고, 총애(寵愛)받던 우미인(虞美人)도 그의 시에 화답하고 자결(自決)했다. 항우(項羽)는 800기(騎)의 잔병을 이끌고 오강(烏江)까지 갔다가 결국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결(自決)하고 마니, 그의 나이 31세였다 한다.

서는 ‘적국 내부의 여론’을 조성하여 전쟁 의지를 분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 2)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과 심리전 현황

### 가)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 인원 규모에 대해 정확하게 공개된 자료는 없으나 그 전체 규모는 대략 6,000~7,000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기관마다 인원을 선출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된 자료 가운데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는 ‘13년 11월 남재준 前국가정보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보고서에서 북한이 7개 해킹 조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해커 또한 1,700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해킹 지원세력은 13개 조직으로 4,200여 명 정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남 前국정원장의 보고 내용 중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이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강조하였다<sup>6)</sup>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14년 6월에는 경찰총국 산하 사이버 부대인 121국을 직접 방문하여 격려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북한 지휘부의 강조와 막대한 지원에 기인한 듯 최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서에서 북한에는 해킹 조직이 6개, 이를 지원하는 조직이 기존 13개 4,300명에서 17개 조직 5,100명으로 확대 개편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sup>7)</sup>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이미 2,500여 명 수준의 전문 해커와 5,100여 명의 지원인력 등 총 20여 개 조직 내에 7,500~8,000여 명의 해커조직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수치를 떠나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 인원 규모는 이미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수준이며, 미 국방성이 2020년까지 각 군과 국방 구성요소에 걸친 CMF (Cyber Mission Forces) 내에 목표로 하는 6,200명을 이미 넘어선 숫자로 그 인력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수준을 보인다.<sup>8)</sup> 또한, 300여 명의 사이버 댓글

6) 남재준. (2013). 『국회 국정감사보고』. 국정원.

7) 남재준. (2014). 『국회정보위보고서』. 국정원.

8) 이정석. (2015).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방 사이버전 수행역량 강화 방안』. 국방대학교국방관리대학원 석사논문. pp.13-14.

을 전담하는 요원도 있다고 한다.<sup>9)</sup> 2014년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은 현재 6,0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내부의 심리적·물리적 마비를 위해 군사작전 차질 유발, 주요 국가기반 체계 공격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sup>10)</sup>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관련된 부서에 지시를 내려 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으며 실제 활동은 통일선전부와 국방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언론에 발표에 따르면, 노동당과 국방위원회 산하 조직에서 사이버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총 4개의 조직(선전·선동부, 통일선전·선동부, 적공부, 경찰총국) 중 3개의 조직이 심리전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때 북한이 전개하는 사이버심리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작전 킷투로 대한민국의 갈등과 혼란은 가중될 것이므로 우리도 합당한 대응을 연구하고 준비하며 실천에 옮겨야 한다.

〈표 2-1〉 북한의 사이버전 조직체계

김정은			
노동당		국방위원회	
선전·선동부	통일선전·선동부		북한군총참모부
선전·선동부	통일선전·선동부	북한군총참모부	경찰총국
대남선전 선동사업에 대한 기본 방침 제시	SNS, 트위터 공작	문화 교류국  ·흑색선전 ·대남선동	사이버전사양성 및 사이버군사 심리전연구  한국군 대상 사이버심리전 (적공국204호)
	사이버심리전	사이버심리전	대남정치 군사심리전 대남사이버심리 전(역정보,허위 정보유포)
		사이버심리전	사이버심리전

9) 국방부.(2015). 『2014 국방백서』 .

10) [http://www.mnd.go.kr/user/mnd/upload/pblicitn/PBLICTNEBOOK\\_201501080300015840.pdf](http://www.mnd.go.kr/user/mnd/upload/pblicitn/PBLICTNEBOOK_201501080300015840.pdf)

## 나)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현황

북한은 ‘전 한반도에서 김일성, 김정일, 조선 건설’을 달성하는 데에 목표가 있다. 2012년 4월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

서문’<sup>11)</sup>에 북한의 당면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의 핵심기조와 방향은 ①.북한 찬양 ②반(反)대한민국 ③반(反)미국 ④반(反)자본주의 등으로 집약된다.<sup>12)</sup>

김정은은 “선전·선동 사업을 통해, 적들이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알게 해야 한다”며 대남 사이버심리전을 위한 전력 강화를 지시하였다. 심리전에 투입되는 요원들은, 청소년들의 신조어와 유행어에 익숙해 있으며, 대상별로 나눠 정치인·일반인·청소년·군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 등 우리 사회 뜨거운 뉴스로 떠오를 때마다 남남갈등·친북 여론·반정부 투쟁·조장을 위하여 사이버상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

유포의 방법으로는 ‘1:9:90 법칙’ 효과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1:9:90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데 ‘북한 요원 1명이 선동 글을 게재하면, 추종 세력자 9명이 글을 실시간으로 퍼 나르며, 그 글을 90명의 일반인이 동시에 보게 된다.’는 것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중북 사이트에 올려진 게시 글과 SNS·인터넷에 퍼져 나가는 유언비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데에 활용하여, 마치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인 양 호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약 300여 명의 댓글 전달 요원들이 SNS 등 각종 인터넷 매체나 장악한 컴퓨터시스템 등을 통해 미리 확보한 도용 ID로 심리적 사이버작전을 전개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비판 감정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사회와 국가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심리전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하여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수 국민

11) 노동당규약 전문. (2012.4.11.).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 . 김정일 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

12) 유동열. (2012).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서울:북엔피플자유민주연구원학회, pp.60-61.

의 인식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간과할 수 없고 SNS 소통의 시대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리는 교육적 대책을 세워야 함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뉴스에 대한 반응 속도 또한 빨라졌다. 군 관계자는 "이전에는 미사일을 쏘면 한참 후에 '기록 영화'를 통해서야 동영상이 공개됐는데, 이제는 다음 날 바로 TV는 물론 유튜브 등을 통해 바로 영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특히, 사드 등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남한 내 갈등을 유발하는 선전戰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갔다.

경찰은 2016년 상반기에만 국외에 있는 친북 사이트 6곳과 SNS 계정 500여 개를 막았으며 불법 카페 40여 곳을 없앴다. 이종명 의원은 “계속되는 단속에도 친북 사이트와 SNS 계정이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이버사령부 등의 대북 사이버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sup>13)</sup>고 했다

---

13)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6&M=10&D=14&ID=2016101400138](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16&M=10&D=14&ID=2016101400138)

〈표 2-2〉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유형	주요내용	성향
북한 찬양	주체사상 및 선군노선 강성재국론 찬양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미화 찬양 북한연방제통일방안 선전 북한체제 우월성 선전	親북한
한국비방· 중상·협박	청와대 불바다협박 천안함피격-미국이 부추겨 남조선괴뢰가 실행 정부시책 왜곡비방-국가보안법폐지 선동	反대한민국
반미의식 고취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관련 반미여론 조성과 반정부 투쟁선동	反미
자본주의 비방	자본주의를 억압착취체제 등으로 악성비방 사회주의 우월성 선전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공산주의 건설)	反자본주의

※출처: 유동열. (2012).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 p.61.

〈표 2-3〉 북한의 SNS 차단 및 폐쇄 2014년~2016년6월 현황<sup>14)</sup>

연도		해외친북사이트	SNS	불법 카페 등
2014년	차단	3	960	
	폐쇄			142
2015년	차단	8	1,039	
	폐쇄			152
2016년	차단	6	565	
	폐쇄			42

14) 이종명. (2016). 『최근 3년간 친북사이트 폐쇄 현황』. 사이버사령부.

## 제 3 장 사이버 심리전 사례와 대책

일반적으로 사이버심리전은 ‘사이버 자원을 활용하여 상대국 내부의 안보 의지를 약화하는 것’을 말하며 군사학에서는 ‘적국 내부의 여론을 조성하여 전쟁 의지를 분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과거의 심리전은 오감을 자극하여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다면 산업시대의 발달로 도래된 인터넷시대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사이버전쟁에서의 그 선두에는 사이버심리전이 있다.

### 제 1 절 국내사례 : 천안함과 사드

#### 1) 천안함

##### 가) 천안함은 최초의 남북 사이버심리전

천안함 전투는 남북이 SNS를 본격 활용하여 맞붙은 사이버 심리전의 첫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패배였다. 북한은 2,000년대부터 사이버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오고 있었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2010년 이전까지는 사이버심리전이 전개될 기반과 여건이 충분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논란을 부를 만큼의 안보적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이 있었지만, 규모도 작았고 사건도 단순했다. 과거 북한과 러시아가 저지른 KAL기 공격 사건은 엄청난 의혹을 낳았지만, 당시에는 사이버 공간이 없었다. 북한은 오랫동안 사이버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준비해 왔고 사이버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키워 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충분한 대응준비를 하지 않았다. ‘사이버 대응능력 강화’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 과제였다. 2009년 북한의 가공할 디도스 공격이 있고 난 뒤, 통일된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시도가 탄력을 받기 시작 했다. 북한이 사이버 공간을 사이버 전쟁터로 활용하는 한, 남북의 공격과 방어의 혈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이버전에서 ‘사이버電子전’ 이상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은 바로 ‘사이버심리전’이다. 사이버 테러는 인터넷망의 물리적 마비와 그로 인한 정보 흐름을 제약한

다. 그러나 사이버심리전은 심리적인 영역으로, 군인들에게는 안보 관계 등 무형 전력의 약화로, 민간에게는 ‘위기 회피’, ‘문약’과 ‘승무 정신 약화’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국가수호 의지를 약화시키고 적의 침공에 대한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키므로 결코 도외시킬 수 없다.<sup>15)</sup> 항우가 이끄는 초나라가 한나라의 유방에게 패한 것은 한밤에 울려 퍼지던 초나라의 노랫가락으로 무너진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나) 천안함 괴담 사이버 심리전 현황

천안함은 근래에 대남 사이버전이 발생한 큰 이슈였다. 천안함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고 이종현은 그의 저서 “스모킹 건”에서 주장한다. 2010년도 초반, 한국의 트위터 가입인구는 10여만 명 정도였고, 페이스북 역시 채 50만 명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 6월 트위터 가입자는 70만 명으로 늘었다. 북한은 조선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명의로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SNS를 이용한 사이버 심리전에 들어갔다.<sup>16)</sup> 2008년과 2009년까지 SNS 친북·중북 계정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0년 이후 1년 7개월 동안 친북·중북 SNS 계정 96개가 발견되어 모두 차단되었다. 전체적으로 경찰청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한 친북 게시물은 2010년 7만 5천여 건으로 2009년 1만 4,230여 건의 다섯 배에 이르렀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중복적, 친북적인 이유 등으로 삭제 요청된 게시물은 5,530 건으로 2009년의 177건보다 30배 이상 폭증했다.

또 2010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친북·중북 사이트 49개 중 40여 개가 차단되었고 카페나 블로그 등 국내에 서버를 둔 블로그와 카페 등은 207개가 폐쇄되었다. 이들 사이트와 블로그 그리고 카페 게시물의 대부분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천안함에 관련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동조하거나 북한의 대남 선전극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었다.<sup>17)</sup>

이처럼 천안함 피격사건은 이전에는 없었던 인터넷 SNS를 통한 사이버심리

15) 이종현. (2015). 전개서. P.391.

16) 이종현. (2015). 전개서. p.388.

17) 이종현. (2015). 전개서. p.399.

전의 시대를 열었으며, 미리 치밀하게 준비했던 북한에 대패했다.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 직후, 북한에 총 한 발 쏘지도 못하고 남남갈등을 막는 데 급급했다. 사이버심리전은 싸우기 전에 이기는 전술이며, 피 흘리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다. 산업의 발달로 도래한 새로운 전쟁이다. 국민의 애국심과 군인의 사기와 전투력은 모두 마음에서 출발한다. 싸우고자 하는 저항의식이 없다면 이미 진 싸움이다. 천안함 괴담은 사이버심리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표 3-1〉 SNS 삭제요청 현황비교 (2009~2010.7)

단위: 건

	경찰청요청	통신위원회요청
2009	14,230	177
2010	75,000	5,530
비고	5배 증가	30배 이상 폭증

〈표 3-2〉 친북·종북 및 사이트·블로그·카페 차단 및 폐쇄  
현황(2010-2011.7)〉

단위: 개

사이트	49개 中 36개 차단
카페. 블로그(국내서버)	207개 폐쇄
내용	북한을 찬양하거나 천안함 관련 허위사실 유포 북한 주장에 동조 및 대남 선전극을 그대로 옮겨 놓았음 ★천안함 의혹을 확산 시키고, 천안함 피격 범인을 대한민국이나 미국으로 몰아갔음

2) 사 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사드 도입을 촉발한 것이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다. 핵탄두 경량화·소량화에 부분적인 성공을 한 것으로 평가된 실험이었다. 안보와 국익을 따라 사드 배치가 검토되고 실행되었지만, 경상북도 성주군 내에 위치한 다른 부지에 대한 검토로 성주군민들을 겨우 설득하자 이번에는 대체 후보 지역 인근의 위치한 김천시가 사드 반대 투쟁을 했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문제였지만 북한의 선전·선동의 사이버심리전으로 결국, 전자파 괴담 때문에 안보는 설 자리를 잃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으며 국가 안보의 정책에 영향이 미쳤음을 알 수 있다. SNS를 통한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경각심을 천안함 괴담에 이어 재차 보여준 사례이다.

가) 사드(THAAD)관련 선전·선동 현황과 사례

최근 3년간 북한 선전 사이트를 통한 사드 관련 선전·선동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8)</sup>

〈표 3-3〉 사드관련 북 선전·선동 현황 (2015.1.2~2016.6.30)

구 분	총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5	1,110	30	64	204	261	214	114	66	44	16	13	50	34
2016	639	40	297	156	59	41	46						

\*출처 : 이종명. (2016). 『2015~2016년북한사드관련선전선동현황』. 사이버사령부.

\*2014.12.8 조직개편 이후 2015.1.2 부 해외 대북 정보수집 시행

18) 이종명. (2016). 『2015~2016년북한사드관련선전선동현황』. 사이버사령부.

〈표 3-4〉 매체별 사드 관련 선전·선동 현황 (망라기간:2015.12~2016.6.30)

사이트명		총 계	선 전 량	
			2015	2016
총계	27개	1,749	1,100	639
1	우리민족끼리	461	284	177
2	조선중앙통신	317	236	81
3	로동신문	186	135	51
4	내나라	148	110	38
5	광명사	114	89	25
6	려명	80	15	65
7	범민련	47	33	14
8	조선의 오늘	44	18	26
9	재미동포전국연합회	38	19	19
10	민족통신	35	13	22
11	류경	34	7	27
12	민족대단결	23	17	6
13	조선신보	17	11	6
14	구국전선	17	14	3
15	백두한나	15	8	7
16	재독일동포연합회	10	7	3
17	기타(통이의 메아리 등 11개 사이트)	163	94	69

〈표 3-5〉 사드(THAAD) 관련 주요 선전·선동 사례

구분	주요 내용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반도를 전쟁의 불마당으로 만들려는 미국의 행위를 추호도 용서하지 않을 것, 미 본토 공격 위협</li> <li>-북 외무성 담화,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준비의 목적으로 호도</li> <li>-탐지범위가 중국의 주요 지역을 포괄, 미·중 간 갈등 조장</li> <li>-군사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li> <li>자위적 핵 억지력 강화 주장</li> <li>-핵을 핑계로 남조선 사드 배치를 합리화, 우리 정부에 인식 변화요구</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중대경고 통해 “위치·장소 확정 시 물리적 대응조치 시행될 것” 남남갈등 가속화 유도</li> <li>-중의 무역 보복·투자 감소를 거론하며, 외교문제 등으로 비화 시도</li> <li>-사드 반대논리 전개</li> <li>-남조선 각계각층의 비난과 규탄,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왜곡 보도</li> <li>-고도의 미사일 기술(산탄) 개발, 사드 설치도 별 소용없을 것, 무용론 제기</li> <li>-사드 설치로 인해 남조선은 주변국들의 1차 타격 대상이 될 것 위협, 배치 철회 요구</li> </ul>

### 3) 기타 북한 사이버 선전·선동 현황

북한은 대남 혁명 전략의 목적으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사이버심리전에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로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한, 국가의 존립과 관계된 무기인 사드 배치조차도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으며 국민적 안보정서에 상처를 입혔다.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를 조장하고 국론분열과 사회혼란,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북한의 선전·선동은 모든 이슈를 망라하여 인터넷으로 개입하고 있다. 2015년의 선전·선동 건수는 75,228건에 달하며, 2016년 9월 19일 조사 시점까지 90,719건으로 이미 2015년 선전·선동 건수를 훨씬 웃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의 방통위와 국내수사로 요청된 친북 게시물 삭제의 상황이 2014년 12,599건, 2015년 13,181건, 2016년 6월 현재 5,249건에 이르는 것을 볼 때 무수히 많은 선전·선동에 국민과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교육 대책이 시급함을 깨닫게 된다.

〈표 3-6〉 2015년 북한 사이버 선전·선동 현황

단위: 건

2015년	총계	대내	대남	대외
1월	5,878	3,530	1,187	1,161
2월	6,562	4,103	1,147	1,312
3월	6,760	3,389	1,971	1,400
4월	6,776	4,127	1,477	1,172
5월	6,335	3,460	1,400	1,475
6월	6,273	3,557	1,416	1,300
7월	6,272	3,669	1,320	1,283
8월	6,645	3,959	1,524	1,162
9월	6,079	3,889	899	1,291
10월	6,700	4,661	1,118	921
11월	5,524	3,251	1,211	1,062
12월	5,424	3,340	1,148	936
<b>총계</b>	<b>75,228</b>	<b>44,935</b>	<b>15,818</b>	<b>14,475</b>

※출처 : 이종명. (2016). 『2015~2016년북한사드관련선전선동현황』. 사이버사령부.

〈표 3-7〉 2016년 북한 사이버 선전·선동 현황

2016년 (사이트+SNS)	총계	대내	대남	대외
1월	8,055	5,457	1,260	1,338
2월	8,457	5,672	1,451	1,334
3월	10,915	5,340	3,308	2,267
4월	11,303	6,745	2,882	1,676
5월	10,358	7,104	2,025	1,229
6월	10,977	6,341	2,874	1,762
7월	12,558	7,045	3,775	1,738
8월	11,029	6,309	3,102	1,618
9월 (1일~19일)	7,067	4,300	1,599	1,168
총계	90,719	54,313	22,276	14,130

※출처 : 이종명. (2016). 『2015~2016년북한사드관련선전선동현황』. 사이버사령부.

〈표 3-8〉 친북계시물 삭제 현황 (2014~2016년 6월)

	방통위	국내수사
2014	164	12,435
2015	764	12,387
2016년(1월~6월)	746	4,503

※출처 : 이종명. (2016). 『2015~2016년북한사드관련선전선동현황』. 사이버사령부.

## 제 2 절 외국사례 : 크림반도

### 1) 크림반도 사이버전

가) 크림반도 분쟁은 2014년에 일어난 것으로, 우크라이나 남쪽의 흑해로 돌출한 크림반도에 대하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영토 주권을 주장하는 분쟁이었다.

#### (1) 분쟁의 발단

2005년 1월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빅토르 유시첸코(Victor Yushchenko)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위해 흑해 함대의 철수를 시사하자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하여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면서 양국 간에 갈등이 재발하였다. 2009년 12월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양국 관계가 호전되는 듯하였으나, 2013년 11월 야누코비치 정권이 유럽연합(EU)과 진행하던 경제협정 협상의 중단을 선언하고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반발한 시민들이 키예프를 중심으로 이른바 유로마이단(Euromaidan)이라 불리는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2014년 2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친서방 성향의 과

도정부가 들어서자, 러시아계 인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크림반도에서는 유로마이단에 반대하여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졌다.

## (2) 결과

이에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병하여 공항 등 주요 시설을 점거하였으며, 2014년 3월 3일에는 사실상 크림반도 전역을 장악하였다. 3월 11일 크림자치공화국 의회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크림공화국(Republic of Crimea)을 세웠으며, 3월 16일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시행되어 가결되었다. 3월 21일에는 러시아 연방 의회가 합병을 승인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크림공화국의 합병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크림반도 전역은 러시아 일부가 되었다.<sup>19)</sup>

## (3) 러시아의 사이버심리전 승리

사이버심리전 위력이 핵폭탄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검증한 대표적 전쟁이 크림반도 분쟁이다. 크림반도 합병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개시했는데 서버 마비나 파괴, 자료의 폐기나 유출 등 물리적 피해가 없이 웹 사이트만 마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사기 저하를 가져왔으며, 러시아의 막강한 전력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러시아에 대한 항전 의지가 완전히 꺾어지게 함으로써 크림반도의 영토가 러시아에 귀속게 되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이버전은 사이버심리전이 병행된 공격이었다. 이후 크림반도 주민의 압도적 찬성으로 러시아에 병합되었고 러시아는 병합과 동시에, 크림반도를 관할하는 연방관구를 신설하였으며, 크림반도는 러시아 연방 체제에 2015년 1월 1일, 완전히 편입되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합병의 교훈으로, 지상전 없이 이기는 전쟁인 사이버심리전의 중요성을 더욱더 깨닫게 하는 전쟁이었다.

## 제3절 북한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대책

---

1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1244&cid=40942&categoryId=33350>  
(검색일자:2016.12.05)

일반적으로 사이버 심리전은 ‘사이버 자원을 활용하여 구성원 내부의 안보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군사학에서는 ‘적국 내부의 여론을 조성하여 전쟁 의지를 분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사이버 심리전은 전 세계에 사이버 인프라가 구축되고 SNS 등 의사소통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전쟁 수단으로 급부상했다. 특히 우리처럼 사이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변화와 이슈에 민감한 사회에는 대단히 유용하고 잘 먹히는 비대칭 수단인 것이다. 20) 지식정보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사이버 영역에서 얻는 정보와 판단의 비중과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중요 안보 이슈에 대해 ‘얼마나 올바른 정보에 접하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건강하게 인식하는가’가 국가의 안보 의지를 좌우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21)

특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일선에 있는 군 지휘관들을 비롯한 간부와 장병 간의 대북관 및 안보관에 상당한 인식 차이22)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과 장병에게 안보에 대한 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건강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3-9〉 군 간부 및 장병 안보의식 조사

조사내용	2014년		2015년	
	간부	장병	간부	장병
현 안보상황 불안정하다	61.3%	46.5%	50.7%	36.9%
안보위협 더 증가할 것	54.8%	37.0%	60.1%	36.5%
북, 적대해야 할 대상이다	56.0%	52.5%	64.6%	47.4%
남북간 국지전 가능성 있다	87.8%	67.3%	86.8%	68.5%
남북간 전면전 가능성 있다	46.6%	28.9%	43.0%	29.8%

\*출처: 김학용. (2016). 『2014·2015 장병의식 조사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

20) 이종헌. (2015). 전개서. p.387.

21) 이종헌. (2015). 전개서. p.387.

22) 김학용. (2016). 『2014·2015 장병의식 조사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

〈표 3-10〉 국방의무에 대한 장병 인식

구 분	2014년		2015년	
국민의 당연한 의무	59.6%		49.8%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27.2%	34.6%	33.6%	45.1%
국방의무 규정은 잘못	7.4%		11.5%	
잘 모르겠다	3.6%		3.5%	
기타 등	2.2%		1.6%	
합 계	100.0%		100.0%	

\*출처: 김학용. (2016). 『2014·2015 장병의식 조사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

위 자료에 의하면 2015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북한은 적대시해야 할 대상이라고 응답한 군 간부의 비율은 64.6%인데 반해서, 장병은 47.4%로 나타났다. 2014년 같은 조사 결과보다 간부의 8.6%가 증가한 것에 반해, 장병은 5.1%가 감소, 격차 폭이 더 커졌다.

위 조사에 의해서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대해서 군 지휘관을 비롯한 간부들과 장병들 간의 대북관과 안보관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학용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장병들의 대북관과 안보관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주적과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투철한 안보관과 기강확립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4·2015 장병의식 조사보고서’의 결과를 나타낸 장병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친 사항들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입대 전 청소년들이 받은 역사 교육의 영향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SNS를 통한 북한을 미화시키는 선전·선동의

심리전에 노출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식 정보화가 심화하면서 사이버 영역에서 얻는 정보와 그를 통해 판단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빨라지고 있다. 민간인이나 군장병이나 다르지 않다. 특히 청소년들의 의식의 고착은 나라의 미래의 향방을 가른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중요 안보 이슈에 대해 ‘얼마나 올바른 정보에 접하는가, 그리고 분별력 있게 구별하고 건강하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국가 수호 의지가 연동된 현실에서 반드시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현황을 교육해야 한다. 해킹으로 유출된 국가기밀과 정책을 북한이 전술·전략적으로 이용한다면 정부 정책마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사드 배치 반대’의 여론을 통해 볼 수 있었다. 북한이 해킹으로 유출된 정책이나 기밀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쓰는 댓글인마냥 정책 불만과 갈등을 조성하는 등의 사이버심리전을 펼치는 것을 간과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입지를 좁혀지게 되고 국가 발전과 수호를 위한 정책수립은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심리전에 유의하고 대국민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행정자치부의 부처별 해킹차단, 이용호 국회의원 보고서 (2016)’를 통하여 제기하고자 한다.

〈표 3-11〉 2011년 이후 정부통합전산센터 해킹시도 차단 건수<sup>23)</sup>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월~7월)	합계
해킹시도 건수	14,039	28,797	35,810	18,123	52,795	37,609	181,173
전년대비 증가율	-	205%	124%	51%	291%	-	
월평균	1,170	2,399	2,984	1,510	4,399	5,372	

23) 이용호. (2016). 『정부통합전산센터해킹시도차단건수』. 행정자치부.

〈표3-12〉 최근 5년(2011년~2016년 7월)부처별 해킹시도 차단  
건수(순위별)

부서/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7)	합계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1,245	954	1,230	1,209	8,463	5,110	18,211
외교통상부/ 외교부(2013)	2,146	1,822	602	461	8,397	4,202	17,630
산림청	283	87	175	196	3,512	2,422	6,675
산업통상자원부 (지식경제부)	1,434	2,916	1,205	62	289	68	5,974
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361	496	666	412	2,914	1,053	5,902
경찰청	894	248	194	686	2,020	1,098	5,14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118	172	558	286	1,646	1,326	4,106
국세청	873	447	355	536	905	880	3,996
보건복지부	230	661	1,313	444	842	493	3,983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13	1,235	754	2,002
소방방재청	153	649	696	48			
문화체육관광부	687	698	442	693	470	232	3,222
여성가족부	79	164	235	187	1,490	1,018	3,173
중소기업청	182	197	137	132	1,556	931	3,135
특허청	187	157	222	121	1,281	1,159	3,127
국가보훈처	114	1,250	1,375	92	93	95	3,019

통계청	388	379	779	195	740	342	2,823
법무부	134	161	136	161	1,302	877	2,771
조달청	498	546	833	258	425	171	2,731
미래창조과학부			589	805	853	425	2,672
인사혁신처					1,360	1,240	2,600
농촌진흥청	271	200	247	212	953	442	2,325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	655	649	378	174	238	191	2,285
문화재청	114	115	113	110	925	579	1,956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147	290	235	96	570	378	1,716
통일부	184	116	117	107	611	375	1,510
기획재정부	220	226	297	82	317	234	1,376
대검찰청	149	103	45	68	724	276	1,365
고용노동부		188	146	632	238	109	1,313
환경부	211	226	177	83	328	193	1,218
관세청	382	190	148	37	139	123	1,019
병무청	52	53	72	85	392	329	983
기상청	121	136	48	41	382	253	981
법제처	178	154	188	64	130	128	842
해양경찰청	139	172	333	143			787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55	126	177	69	44	54	525

해양수산부			32	62	209	103	406
감사원	71	116	65	36	63	53	404
새만금개발청					180	110	290
노동부	60						60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8	6	26	10	50
정보통신부	2						2
국정홍보처	1						
기타	1,021	13,733	21,242	9,019	6,533	9,773	61,321
합계	14,039	28,797	35,810	18,123	52,795	37,609	187,173

〈표3-13〉 최근 3년(2012년~2016년 7월) 공격국가별 해킹시도 차단 건수<sup>24)</sup>  
(단위:건)

순위	국가명	차단건수
1	한국	12,312
2	중국	1,870
3	미국	1,529
4	네덜란드	194
5	프랑스	168
6	홍콩	153

24) 이용호, (2016). 『최근 3년('14~'16.7월) 공격국가별 해킹시도 차단 건수(순위별)』. 행정자치부.

7	일본	151
8	독일	134
9	러시아	124
10	영국	121
-	기타	1,367
합 계		18,123

〈표 3-14〉 2015년 국가별 해킹시도 차단 건수

(단위:건)

순위	국가명	차단건수
1	한국	10,951
2	중국	10,642
3	타이완	6,886
4	미국	5,864
5	베트남	1,615
6	러시아	1,599
7	프랑스	1,115
8	브라질	1,007
9	독일	989
10	인도	845
-	기타	11,282
합 계		52,795

〈표 3-15〉 2016년(1~7월) 국가별 해킹시도 차단 건수

(단위:건)

순위	국가명	차단건수
1	중국	11,090
2	미국	4,322
3	타이완	4,007
4	한국	3,608
5	멕시코	1,956
6	러시아	1,778
7	브라질	824
8	독일	708
9	프랑스	642
10	네덜란드	616
-	기타	8,058
합 계		37,609

위 표에 의하면, 2011년 이후부터 2016년 6월까지 18만 7천여 건의 정부 부처에 대한 해킹으로 인한 차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해킹차단이 행정자치부가 1위로 18,211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이 외교통상부로 17,630건이다. 우리나라의 행정업무와 자치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와 중요 외교적인 문서와 정책을 담당하는 외교부에 대한 해킹 시도가 높다는 것은 심히 염려스럽다. 행정자치부와 외교부는 정책과 기밀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정보가 있으며, 특히 외교 안보는 국가수호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기밀과 외교기밀 그리고 국민들의 모든 정보가 유출된다면 국가안보에 있어서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사이버심리전으로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통합전산센터에 해킹한 IP를 추적했을 때 중국이 2015년 10,642건, 2016년 1월에서 7월까지 11,090건으로 전체 해킹한 국가별 건수로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많은 사이버전 요원들이 중국에

주둔하고 있음을 우리가 중국의 해킹 공격에서 더욱 더 예의 주시해야 한다

## 제 4 장 現 나라사랑교육의 문제점 및 교육방안

### 제 1 절 국가보훈처 나라사랑 교육실태와 문제점

#### 1) 나라사랑교육실태

현재 나라사랑교육은 보훈처를 비롯하여 많은 단체가 행하고 있다. 주로 국가보훈처의 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5년 국가보훈처 발간 명예로운 보훈을 위한 분단 70년 마감<sup>25)</sup>을 위한 국민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을 보면 1. 나라를 어떻게 찾고 지켰는지 2.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3. 북한의 대남전략이 얼마나 위협한지 4. 통일은 왜 대박인지 교육 내용을 함축하여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양하고 있다. 또한, 보훈 교육연구원에서 교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발간한 나라사랑교육 교사용 지침서<sup>26)</sup>를 보면 ‘1. 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하는가 2.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가르쳐야 하는가 3.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의 목차의 세부교육을 보면 나라사랑의 의미와 근거, 호국·보훈 교육의 의미와 근거, 역사(한국사)교육의 의미와 근거, 민주시민교육의 의미와 근거, 안보교육의 의미와 근거,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호국보훈의식, 올바른 역사의식, 자유 민주시민의식, 건전한 안보관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한반도 민족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왜 대한민국이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금껏 5,000년 한반도의 역사는 군주의 나라였고 그들이 주인이었고 우리들은 백성 내지는 신하였거나 종이나 노예로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공화국으로서 내

25) 국가보훈처. (2015). 『광복 70년 분단 70년 마감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국가보훈처.

26) 보훈교육연구원. (2013). 『나라사랑교육』.

가, 우리가,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하고 자유와 공화국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도록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실체를 청소년들이 분명히 알 때,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가짐은 달라질 것이고 지켜야 할 가치를 깨닫고 나라사랑정신이 자발적으로 함양될 것이다

〈표 4-1〉 명예로운 보훈 내용<sup>27)</sup>

구분	내용
1	나라를 어떻게 찾고 지켰는지
2	한미 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3	북한의 대남 전략이 얼마나 무서운지
4	통일은 왜 대박인지

27) 국가보훈처. (2015). 『명예로운 보훈』.

〈표 4-2〉 나라사랑교육, 교사용 지침서<sup>28)</sup>

구분	교육	세부내용
1	왜 ‘나라사랑’을 가르쳐야 하는가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를 인지. 나와 국가를 하나로 묶어주는 국가정체성을 함양하고 국민통합을 형성·강화
2	어디에 비중을 높게 두고 가르쳐야 하는가	나라사랑, 호국·보훈교육, 역사(한국사), 민주시민교육, 안보교육등의 의미와 근거
3	3무엇을 가르쳐야하는가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 호국·보훈의식. 올바른 역사인식과 안보관, 자유 민주시민의식

28) 보훈교육연구원. (2013). 『나라사랑교육, 교사용 지침서』.

〈표 4-3〉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29)

구분	교육지침	교육내용
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 ●경제대국 코리아 ●문화강국 코리아 ●스포츠강국 코리아 ●그러나 북한은
2	어려움을 딛고 선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을 넘어서다
3	땀과 눈물로 달려온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 ●민주주의의 꽃이 피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성
4	함께 지키는 대한민국	●지정학적 요충지, 그 위기와 기회 ●우리가 알아야 할 북한 이야기 ●안보없이 국가없다 ●한미동맹, 든든한 우방이 있다
5	꿈꾸는 대한민국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 독일의 오늘
6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 ●나라는 국민을, 국민은 나라를 지킨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인식시키며,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가난과 폐허를 딛고 일어난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부각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

29) 국가보훈처.(2015). 『나라사랑의 길 (초등대상)』.

부심을 느끼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일제 침략기의 대일 항쟁과 대한민국 수립을 통하여 나라의 소중함 일깨우며, 북한의 준비된 침략으로 도래된 6·25 전쟁의 교훈으로 이 시대의 호국정신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안보의식 고취를 통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보훈을 통한 국가수호와 국민대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음을 교육하면서 나와 국가를 하나로 묶어주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큰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보훈교육연구원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내용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 민족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구별함이 필요하다. 나 자신이 왕조시대의 백성이나 신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명확히 분별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심을 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안보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 사이버 상에서의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함이 필요하다.

## 2) 나라사랑 교육 문제점과 방안제시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 교육을 통해서 보훈의식을 함양시키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며, 명예로운 보훈이 호국으로 이어지게 하는 훌륭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국가 발전과 국가수호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통일로 이어지는 국민의 정신을 모으는 데 큰 일조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교육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훈과 호국 차원으로서의 ‘청소년의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시한다.

국가보훈처를 비롯하여 나라사랑 고취를 위하여 교육하는 단체들을 보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일어난 전쟁과 피해를 자료를 기초하여 교육하고 있다. 물론 역사를 가르쳐야 하겠지만 새로운 시대, 사이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의 피해를 가르쳐야 할 시대가 도래되었다. 북한의 대남전략이 선전·선동으로서 국민 분열과 남남갈등 그리고 국가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조선노동당 규약의 목적인 적화통일을 도모하고 있는 현실에서 6·25와 같이 눈으로 보이는 피해가 있는 전쟁과 도발이 아니라 사이버에서의 보

이지 않는 공격, 서서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무너지게 하고 대한민국에 반감을 갖고 적대시하게 하고 오히려 공산주의를 벗어난 김일성 왕조를 두둔하게 하는 북한의 사이버 침투와 공격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은 오히려 부족하다. 그것은 증거의 불충분과 자료제시의 어려움에서 기인하겠지만, 객관적 사실로 공개된 사안으로도 충분하게 북한의 사이버 침투 현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고 경각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절 바람직한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교육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표한 인터넷 이용 2015년 자료 중 <그림-1>을 보면, 대부분의 전 연령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며, 평균, 하루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주요 사용 용도는 SNS, 이메일, 인터넷 전화 등 커뮤니케이션이 높게 나타났으며 (91.4%), 다음으로는 상품 정보 검색, 뉴스 보기 등 자료, 정보 획득에 89%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주요 용도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검색 및 온라인 뉴스 검색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림 4-1〉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이용도

2. 인터넷 이용행태

가. 인터넷 이용빈도 및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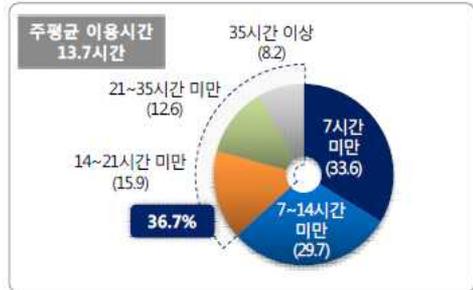
◆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92.3%)이 매일 인터넷 이용

- 인터넷 이용자 대부분(92.3%)은 하루에 1회이상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3.7시간(일평균 약 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주평균 14시간 이상('14-21시간' 15.9%, '21-35시간' 12.6%, '35시간 이상' 8.2%)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도 36.7%임

[그림 12. 인터넷 이용빈도(%)  
-만 3세이상 인터넷 이용자]



[그림 13. 인터넷 이용시간(%)  
-만 3세이상 인터넷 이용자]



나. 인터넷 이용용도

◆ 인터넷의 주요 용도는 '커뮤니케이션(91.4%)'과 '자료 및 정보 획득(89.4%)'

- 인터넷을 이용하는 용도로는 SNS, 이메일, 인터넷전화 등 '커뮤니케이션'이 9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상품 및 서비스 정보 검색, 온라인 뉴스 읽기 등 '자료 및 정보 획득(89.4%)'이 뒤를 이음

[그림 14. 인터넷 이용용도(복수응답, %)-만 3세이상 인터넷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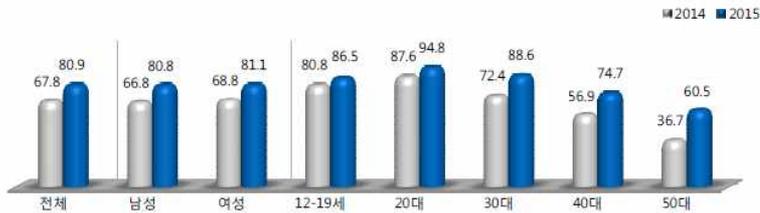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발표에 따르면 모바일인터넷 이용자의 최근 1개월 이내 ‘SNS 이용률’이 80.9%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1%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모바일 SNS 이용률은 10대 86.5%, 20대 94.8%, 30대 88.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모바일 SNS는 유선(PC) 11.6%의 비중보다 모바일 SNS를 이용하는 비중이 88.4%의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모바일인터넷의 이용도가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뉴스, 자료검색 및 정보습득 99.8%,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 SNS(커뮤니티,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99.5%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환경은 모바일인터넷을 이용하여 SNS 활동을 주로하며 자료, 정보 습득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10대와 20대의 인터넷을 통하여 SNS를 활용하고 뉴스검색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하는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봤을 때, 북한의 대남전략부서에서 SNS를 이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및 국가 정체성의 형성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대남 적화 통일을 달성할 사상적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비한 나라사랑 교육이 필요하다.

〈그림 4-2〉 모바일 SNS 이용률<sup>30)</sup>

**모바일인터넷이용자의 80.9%가 최근 1개월이내 '모바일SNS'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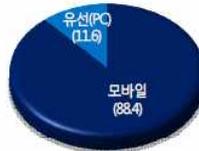
- ▶ 모바일인터넷이용자의 80.9%가 최근 1개월이내 '모바일SNS'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1%p 증가한 수치임
- ▶ 모바일SNS 이용률은 연령별로 20대(94.8%), 30대(88.6%), 10대(86.5%) 순으로 조사됨

[그림10-1] 모바일SNS 이용률 (단위 : %)



- ▶ 이용빈도 기준으로 SNS의 모바일/유선(PC) 이용비율을 살펴보면, 모바일을 통한 SNS 이용비율은 88.4%인데 반해, 유선(PC)을 통한 SNS 이용비율은 11.6%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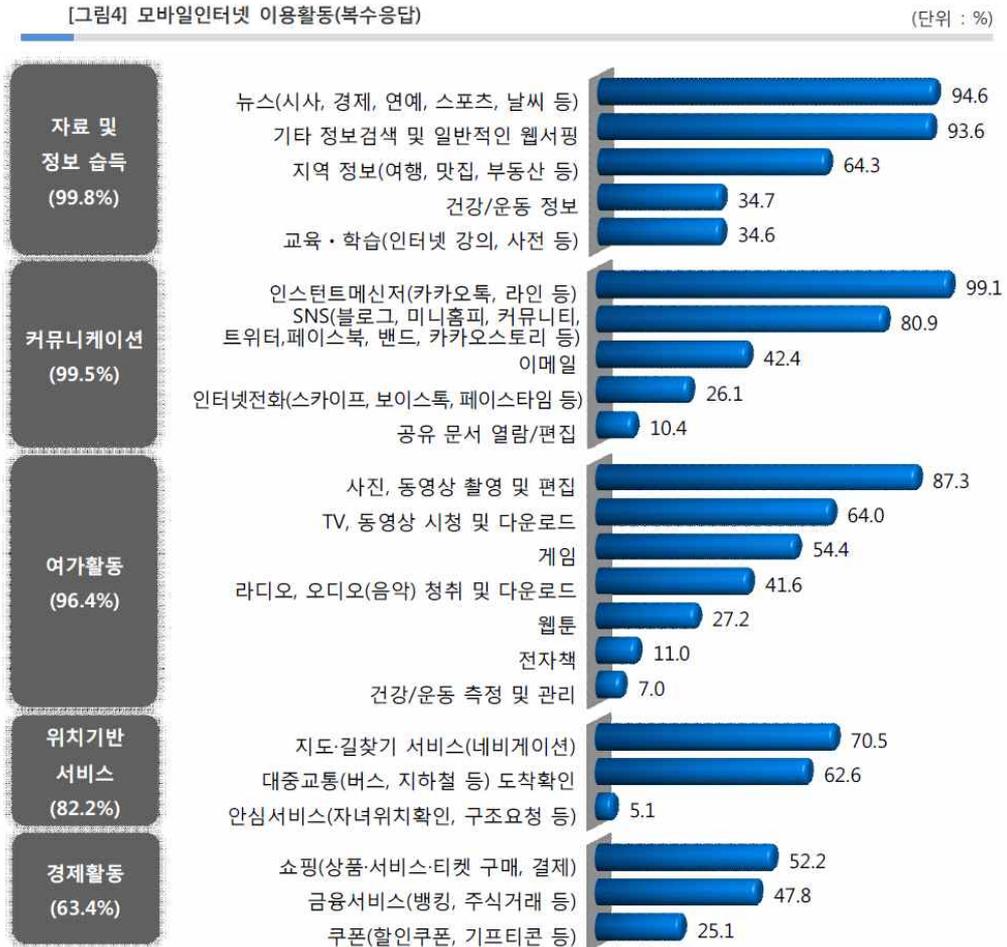
[그림10-2] SNS 이용비중 - 모바일SNS 이용자 (단위 : %)



30)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2015 인터넷 이용현황조사 요약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그림 4-3 > 모바일 인터넷 활용도

- ▶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활동은 '자료 및 정보습득(99.8%)'과 '커뮤니케이션(99.5%)', '여가활동(96.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그 다음으로 '위치기반서비스(82.2%)', '경제활동(63.4%)'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한국정보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2016년 한국미디어패널 조사결과보고서”에서도 청소년들의 SNS 이용률이 10대 51.3%, 20대는 75.6%로 나타났으며 30대 65.1%, 40대 50.2%, 60대 8.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 > 어린이 청소년 SNS 이용률<sup>31)</sup>



31)정보통신연구원. (2016). 『한국미디어 패널조사결과보고서』.

〈그림 4-5〉 스마트기기 자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sup>32)</sup>

(스마트기기) 자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1~3순위 기준)



〈그림 4-6〉 어린이 청소년 휴대폰 보유현황<sup>33)</sup>



32) 정보통신연구원. (2016). 『한국미디어 패널조사결과보고서』. 정보통신연구원.

33) 정보통신연구원. (2016). 『한국미디어 패널조사결과보고서』. 정보통신연구원.

<출처: 정보통신연구원의 '2016 한국미디어 패널조사결과보고서'>

위 표에 의하면 2014년 이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의 휴대폰 보유율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증가한 원인은 스마트폰의 보유율 증가로 보고 있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6년 31.7%로 증가하여, 2014년 22.6%보다 상당한 증가폭을 보였다. 초등학생 고학년의 휴대폰 보유율이 2016년에는 77.0%이다.

2016년에는 처음으로 중학생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90%를 돌파했지만, 고등학생은 2015년 96.8%, 2016년에는 94.7%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입시를 앞두고 공부에 치중하는 것이므로 감소하여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5 인터넷 이용현황조사 요약보고서'와 정보통신연구원의 '2016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결과보고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과 모바일 인터넷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에 합당한 나라사랑 앱을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것이 유용한 교육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나라사랑교육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나라사랑과 사회 전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북한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진짜와 가짜정보를 혼합하여 SNS를 통하여 퍼뜨리고 사이버심리전을 펼칠 때,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사례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 가)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개념의 확장

산업시대의 발달로 인터넷 시대가 도래되었고 전쟁터가 사이버로까지 확장되었다. 지금의 사이버전쟁터에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지 않다. 시대의 변화와 전쟁터의 진화에 따른 나라사랑교육의 확장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를 비롯하여 나라사랑 고치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을 보면 지금껏 역사적으로 나타난 전쟁과 피해를 자료만을 기초하여 교육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역

사적 사실을 당연히 가르쳐야 하겠지만 새로운 시대, 사이버 시대를 사는 청소년들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의 폐해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천안함과 사드에서 SNS를 활용한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이 국방부와 국정원 자료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를 통한 국민 분열과 남·남갈등 그리고 국가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조선노동당 규약의 목적인 적화통일을 도모하고 있는 현실에서 6·25와 같이 눈으로 보이는 피해가 있는 전쟁과 도발이 아니라 사이버에서의 보이지 않는 공격, 서서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무너지게 하고 대한민국에 반감을 갖고 적대시하게 하고 오히려 공산주의를 벗어난 김일성 왕조를 두둔하게 하는 북한의 사이버 침투와 공격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은 오히려 부족하다. 그것은 증거의 불충분과 자료제시의 어려움이 있지만, 공개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충분하게 북한 사이버 침투의 현실에 대해 교육을 할 수 있고 경각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교육방안의 실제적 접근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안보위협으로 인해 징병제를 시행하는 나라이다.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1) 사이버전의 실상을 알리는 교재가 필요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 앱’을 운영함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례들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작성된 교재를 만들어야 하며, 시중에 떠도는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한 진위를 알아볼 수 있는 앱을 개발하여 사이버전이나 심리전에 대응해야 한다.

(2) 젊은 세대들로 구성된 나라사랑 전문강사들의 활동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 방어하고 국론분열과 국가수호 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나라사랑교육을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국방의 의무를 다한 젊은

세대들로 구성하여 활동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겪은 전쟁이 옛날 이야기책 속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나라사랑의 정신이 함양되는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본다. 그래서 스스로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3)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주의 가치를 과감하게 가르쳐야 한다. 사이버전에 대한 교재에는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심리전을 다루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나라사랑을 해야 하는가를 인식하게 하는 국가 정신의 교육이 시급하다.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인정받은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정통성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민족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1945년 해방 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체제의 선택이 국민들의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했음을 알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가르쳐야 한다.

(4) 동족살상의 비극 6·25전쟁을 일으키고 김씨 왕조를 세운 김일성과 김정일의 실체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6·25 전쟁의 일으킨 장본인이 김일성이며, 적화통일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북한임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6·25 전쟁으로 인한 폐해와 이산가족의 슬픔 등은 사실적인 자료로서 알려야 한다. 그리고 6·25전쟁을 통해 유엔군 40,670명이 전사했고 한국군은 137,899명이 사망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하려고 충성스럽게 싸웠던 한국 군인들 대부분, 약 134,000 여명의 유해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과 들, 그리고 골짜기에 방치되어 있다. 이들이 이름 석 자도 알아주는 이 없이, 국군묘지에 안장되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서 그분들을 기리는 마음을 꼭 갖게 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꽃다운 목숨으로 지켜졌다는 것을 꼭 가르쳐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과 북한이 여전히 대치상황임을 깨닫게 해주는 천안함·연평해전·북한지뢰

용사나 전상자·전사자들의 유족들을 산 증인으로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지금 현재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는 국군들이 우리 옆에 있는 현실을 알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이 실감이 될 것이다. 6·25 전쟁으로 한반도가 초토화되었고 1,000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등진 채 여전한 도발을 하는 북한이 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공감하게 될 것이다.

## 제 5 장 결 론

2,000여 년을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떠돌았던 이스라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고 민족이 말살당할 뻔했던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의 나라사랑에 대한 교육은 각별하다. 우리나라의 나라사랑교육과 같은 이스라엘의 셀라흐 교육은 중·고등학교 과정인 7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필수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교육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의 중요함을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이 나라사랑교육, 곧 이스라엘을 존속시키는 정신이며 힘 입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나라사랑교육도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필수교육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체계적인 교육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인 나라의 평안함이, 우리의 생활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는지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나라의 평안함을 가져오고 그 평안함으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역사의 사실을 통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며 ‘나와 나라와의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1950년 민족동란인 6·25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이다. 여전한 남북대치 중이며 전쟁을 하는 나라이다. 산업시대의 발달로 전쟁터의 개념이 사이버로까지 확장되었다. 북한의 온갖 선전·선동이 사이버상에서 난무하고 있다. 나라사랑교육이 이제는 사이버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눈으로 나타나고 파괴되는 전쟁만이 위험하고, 드러나지 않은 전쟁은 평화적이라는 흑백논리의 위험성을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알려야 한다. 사이버심리전은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공격 수단 중에 제일 먼저 사용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수행하는 북한의 작전 전개는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미 확보한 도용 ID로 유언비어를 퍼트려 정부나 군을 비방한 글을 비방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끔 혼란을 야기시킨다.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견해를 증대시킬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수 국민의 의식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피해가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사이버심리전의 경우 은폐, 우회, ID 도용과 댓글에 대한 조사는 공격주체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고 또 장기간 소요되는 한계점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남·남 갈등유발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는 북한의 침략 전략이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은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인식과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해제시켜 감상적 평화주의와 민족공조 등의 의식을 확산하여 자유민주체제의 무장해제를 초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식 속에 북한체제와 대남 적화노선을 정당화를 심어 줄 수 있다. 공격해 오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처럼 위험한 일도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 바이러스들이 생명에 위협적인 것처럼,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청소년들에게 서서히 스며들게 하여 결국은 반대한민국 정서로 돌아서게 하여 더더욱 대한민국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사이버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심리전의 영향이 크다. 이러한 북한의 침투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얼마나 전파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보안과 교육이 시급하다. 나타나고 드러난 전쟁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 전쟁의 결과를 확인해 줄 뿐이다. 세계적인 IT 강국, 대한민국의 인프라가 대한민국을 침투하기 위한 북한의 통로가 되어 공격을 받고 있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시민으로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첫째, 북한의 사이버심리전 공작과 전술 및 수행체계 투쟁 행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파악이 필요하며,

둘째,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을 교육할 기본 사이버전 교재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와 주변 정세에 대한 올바른 정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 알 수 있도록 통합된 앱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나라사랑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 주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정체성, 민주시민의 의무와 권리 및 국가를 위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보훈 정책에 대한 내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일본 식민지 치하 속에서 나라를 찾고자 순국의 길을 걸었던 독립투사 유공자분들과 더불어 6·25 전쟁으로부터 젊음을 바쳐가며 대한민국을 지켰던 동시대의 사람들 또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이전의 한반도 역사는 왕이 주인이었고, 우리는 왕의 백성이었지만,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는 ‘나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젊은 청년들을 사이버전을 가르칠 강사로 활용하여 교육을 활성화할 때, 자유 시민으로 성장할 청소년들에게 더욱 더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전시 상황과 사이버전의 심각성을 알리는 민간 사이버 전사로서 해야 할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 서도 다른 국가에 대하여 사이버전·선동에 의한 심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소련이 사이버 심리전에 주력하고 있는 수법 중에 ‘거짓말 폭탄, 유언비어 폭탄’이라고 한다. 목적은 상대 군을 와해시키고 내정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여, 본인들이 추구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러시아 사이버 심리전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미 증거로 확보된 상황이다. 앞으로 사이버심리전은, 전쟁이 지리와 물리적인 장소에 묶여있다는 전통적 개념을 무너뜨리고, 비물리적 성격을 띠므로 민간 부분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젊은 강사들은 훌륭한 민간인 나라사랑 사이버심리전 지원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시대, 사이버심리전을 가르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인터넷 활용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교육 강사로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사이버전의 위험성을 공감하게 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국가보훈처. (2014). 『나라사랑 교육 전문강사진 워크숍』. 서울:국가보훈처.
- 국가보훈처. (2015). 『광복70년 분단70년 마감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보훈』. 국가보훈처. (2015). 『명예로운 보훈』.
- 국가보훈처. (2015). 『나라사랑의 길 (초등대상)』.
- 국방부. (2015). 『2014 국방백서』.
- 국정원. (2013). 『북한의 선전선동 현황』.
- 김순옥. (2012). 『6·25란 무엇인가?』. 서울:6·25한국전쟁진실알리기운동본부.
- 김학용. (2016.9). 『2014·2015 장병의식 조사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
- 김홍광. (2004). 『북한의 사이버정보전 대응과 전략』.
- 남재준. (2013). 『국회 국정감사보고』. 서울:국정원.
- 남재준. (2014). 『국회정보위보고서』.국정원.
- 박윤식. (2011).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4.잊을 수 없는 6·25전쟁』. 서울:휘선.
- 보훈교육연구원. (2013). 『나라사랑 교육』.
- 보훈교육연구원. (2013). 『나라사랑 교육, 교사용 지침서』.
- 엄정호 외 2인. (2012). 『사이버전개론』. 서울:홍릉과학출판사.
- 유동열. (2012).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 서울:북엔피플자유민주연구학회.
- 이상호. (2014). 초 연결사회의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국가안보 강화방향, 『국제문제연구』, 제 14권 4호 (2014 겨울호).
- 이용호. (2016). 『정부통합전산센터 해킹시도차단건수』. 행정자치부.
- 이용호.(2016). 최근 3년('14~'16.7월) 공격국가별 해킹시도차단건수 (순위별)』. 행정자치부.

- 이정석. (2015).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국방 사이버전 수행역량 강화 방안』. 국방대학교국방관리대학원 석사논문.
- 이종명. (2016). 『최근3년간친북사이트패쇄현황』 국회의원보고서.
- 이종헌. (2015). 『스모킹 건』. 서울:맥스미디어.
- 자유민주연구원. (2014). 『북한의 대남전략과 정치공작』.
- 정민경. (2015).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정보통신연구원. (2016). 『한국미디어 패널조사결과보고서』.
- 정태명. (2009). 『사이버 공격과 보안 기술』. 서울:홍릉과학출판사.
- 통일부. (2012). 『2011 통일교육지침서』. 서울:통일부 통일교육원.
- 통일부. (2016). 『노동당규약』.
-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5인터넷 이용현황조사 요약보고서』
- 허남성. (2014). 『전쟁과 문명』. 서울:도서출판 플래넷미디어.

## 2. 인터넷 사이트

국방부. <http://www.mnd.go.kr>

국회. <http://www.assembly.go.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미래창조과학부. <http://www.msip.go.kr>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www.kisa.or.kr/main.jsp>

## ABSTRACT

Studying to raise teenagers love for the country  
by using SNS(Social Network Service): Prepare to  
penetrate the North Korean internet

Son, Young-Soo  
Major in Unification Policy  
Dept. of Management for National Defense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North Korea has strengthened that 'the winning from the cyber war in terms of the revolutionary war toward South Korea is greater than the power of nuclear weapon'. Also, North Korea has focused on training experts and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country has gone through the cyber war toward South Korea, trying every possible means.

North Korea is the psychological warfare to cyberspace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hrough the promotion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istort the policy and lied and social chaos. Causing

Our teenagers are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in the cyber space

which is a new world, collecting and sharing information.

This new paradigm of the teenagers has been the target of North Korea's cyber psychological warfare.

Although the situation has been worse, we are in the defenseless state.

North Korean cyber exactly the psychological penetration in order to prevent North Korea learning about is needed. As a result, teens and North Korean cyber education aimed at establishing national identity for the legiti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psychological warfare in the writing and teaching materials applications by developing rapport that can be effective to do.

Thus, we suggest the education necessary for teenagers, to protect them from the propaganda and demagoguery of North Korea's cyber penetration.

**【Key words】** Cyber invasion, cyber terrorism,  
love of country education, propaganda and incitement.